

식량 뚝 끊겨도 6개월 버틸 수 있는 '힘' 필요하다

윤준병 국회의원

식량비축과 수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국제 정세 불안이 촉발한 곡물가 급등, 코로나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식량안보법 제정 필요성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윤준병 의원이 '식량안보특별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윤준병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발췌

제21대 국회 윤준병 의원



? 지난해 6월 29일 식량안보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취약국입니다. 2021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4%로 곡물 중 쌀만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뿐 밀·콩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이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 이번 특별법안 핵심내용이 궁금합니다. 핵심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런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죠. 5년마다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세워서 식량안보 정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한 위기를 대비해 일정량의 비상식량을 저장하고, 통일을 대비한 식량 비축대책 마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식품산업 지원 규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① 식량 공공비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비축량 기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하는 것은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는 연간 쌀 소비량의 17~18% 수준을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100만톤 수준의 쌀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20만톤 수준을 매입하고, 중국은 주산지는 3개월, 주소비지는 6개월분의 비축을 목표로 비축목표량의 20~30%를 매년 매입하고 있어요. 이를 종합해 '식량안보특별법안'에서는 공공비축 양곡의 비축물량을 국민 전체가 6개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② 통일을 대비한 식량비축 근거도 눈에 띄입니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및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특별법안에서 남북통일에 대비해 120만톤의 쌀을 상시적으로 비축·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매년 60만톤의 쌀을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통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준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통일 대비 비축량을 2년이 지나면 가공용으로 공급함으로써 든든한 식량안보는 물론 산업활성화와 소비촉진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③ 법 제정을 위한 앞으로 계획은?

다각도의 활동이 필요하지만 우선 입법 활동부터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특별 법안에 더해 지난 3월 말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다시 국회에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콩의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을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이를 계기로 공론화가 진행되면 식량안보를 규범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④ 쌀가공식품 업계에 한 말씀해주신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개발을 촉진하고, 식량공급 체인을 안정화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쌀가공식품 산업계는 식량공급 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축입니다. 밥쌀과는 달리 매년 가공용쌀 사용량이 늘면서 쌀가공식품은 곡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대표적인 수출 식품, 프리미엄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통해 가공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은 더 건강한 식품을 소비하며, 농촌은 활짝 웃을 수 있는 선순환을 위해 뛰겠습니다.